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불도(佛道)를 구하는 이들이여!

## 甘露의正道가 나왔는데 무얼하고 있는가

감로      정도

열반경에는 석가세존이 열반에 들기 전에 자신의 수제자 가섭으로부터 감로의 정도를 설하여달라는 부탁을 받는 내용이 나온다. 가섭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스승 석가모니가 부처의 경지에 오른 분이라면 생사(生死)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자신들에게 설해준다는 감로의 정도를 설하신 후 열반에 들면 되지 않는 것이다.

감로의 정도를 설하지 못한 석가모니

“오직 원하옵건대 여러시여 우리들에게 감로의 바른 도를 보여서 지도하시고 세상에 오래 사시고 열반에 들어가시지 마십시오. 唯樂如來(유원여래) 示導我等甘露正道(시도아담감로정도) 久住於世勿入涅槃(구주어세 물입열반)”  
대반열반경 2권 壽命品(수명품) 1의 2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러한 부탁을 들었음에도 끝내 감로의 정도를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버린다.  
석가모니는 감로의 정도가 무엇인지 과연 몰랐을까?

한편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면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반열반(般涅槃)을 갖춘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미륵불이 출현할 것을 말한다.

“이때에 세존께서 가섭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나이가 이미 쇠하고 늙어서 80이 되어간다. 그러나 이제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보여주는 증표 / 2015년 메시아절 신순이 사진부장 촬영

여래(석존)에게 4대 성문제자가 있어서 중생교화를 맡기려고 하느니 지혜도 많고 여러가지 덕을 갖추었는데 누가 넷이나. 이른바 대가섭(大迦葉)비구 군도발한(君屠鉢漢)비구 빈두로(賓頭盧)비구 라운(羅云)비구 등 너희가 4대성문이다. 그렇지만 반열반이 아니니 내 법이 다 없어진 후애나 반열반이 나온다. 대가섭도 절대로 반열반이 아니니,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하여야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미륵불이 교화시키는 제자가 다 석가모니불의 제자이니, 나로 인하여 교화하는 제자를 넘겨받아 유루(有漏)의 도를 다 없애어 완전한 도를 얻게 하느니라. 爾時世尊 告迦葉言 吾今年已衰耗 年向八十餘 然今如來有四大聲聞 堪任遊化 智慧無盡 衆徒具足 云何

爲四 所謂大迦葉比丘 君屠鉢漢比丘 賓頭盧比丘 羅云比丘 汝等四大聲聞 要不般涅槃 須吾法沒盡 然後乃當般涅槃 大迦葉亦不應般涅槃 要須彌勒出現世間 所以然者 彌勒所化弟子 盡是釋迦文佛弟子 由我遺化得盡有漏”  
불설미륵대성불경(佛說彌勒大成佛經)에 나오는 이야기다. 미륵불이 나와야 불자들이 반열반, 즉 성불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륵보살이 미래세계에 중생들에게 큰 귀의처가 될 것이다. 미륵보살에게 귀의하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곧 ‘위없는 도’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며 이 사람은 미륵보살께서 여래, 공양 받을 이, 더 없이 옮겨 깨달은 이로 이루어 부처가 될 때

에, 미륵불(彌勒佛)의 광명(光明)을 보는 것과 함께 곧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하는 수기(授記)를 얻느니라. 佛告優婆塞 汝今諦聽 是彌勒菩薩 於未來世 當爲衆生 作大歸依處 若有歸依彌勒菩薩者 當知是人 於無上道 得不退轉 彌勒菩薩成多陀阿伽度阿羅漢阿三 三佛陀時 如此行人 見佛光明 即得授記”

이는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출전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기록된 이야기다. 즉 미륵불이 발하는 광명으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다.

감로를 들고 나온 분이 미륵불

석가는 감로의 정도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감로는 미륵불의 증표로서 감로가 나오면 불생불멸(不生不滅)한다고 불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석가 시대에는 감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시대가 되지 못했다.

비로소 조희성 선생이 오셔서 불경에서 말하는 감로가 바로 이런 것(사진 오른쪽 빛으로 드러난 부분)이라는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감로를 받으면 죽음이 없게 되고, 수명이 연장되어 불사(不死)에 이르게 된다고 설하시니 석가모니가 말씀한 모든 내용과 딱 부합한다. 감로를 내리는 승리제단에 와야 성불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고행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성불은 불가능하다. 감로 없이는 성불은 안 되는 것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76)

### “주님을 억만분의 일 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단계”

이 영의 싸움은 1,2,3,4단계 순서대로 올라가는 것이다. 막연하게 내 주님을 잊어버리고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1단계는 위험한 것이다. 최소한 2단계 정도는 올라가야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지 1단계에서는 언제 마귀 밥이 될지 모르는 것이다. 3단계 권에 들어가야 최소한 구원권에 섰다가 되는 것이다.

“자유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라는 말씀이 바로 마귀를 죽여야 구원이고, 은혜를 간직해야 구원이라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생각이 내려야 날 수가 없고, 의식하려야 할 수 없는 선상에 올라가야 겨우 3단계인 것이다.

주님을 억만분의 일 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완전히 주님 얼굴이 눈 안에 박혀져 있는 고로 눈만 뜨면 내 주님이요,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이것을 생각하나 저것을 생각하나 항상 내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는, 억만분의 일 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단계가 4단계인 것이다.\*



구도의 길

## 신앙의 구심점

신앙의 구심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구세주께서 보광의 길로 가신 후에는 더욱 그렇다. 신앙의 구심점을 잘못 두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까다하면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영도 무당패(이해복을 따르는 무리들)들처럼 신앙의 구심점을 잘못 두어 이단이 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해외주님의 역할 막중

구세주의 갑작스런 보광으로 전 교인들이 엄청난 충격 속에 있을 때 당시 김삼욱 신도회장은 교인들에게 구세주께서 보광 후에 제단 운영에 대하여 받은 지침을 말하였고, 김 전 회장은 그 지침대로 행하려고 무척 하다는 이치를 널리 알리려 한다.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내와 인간성 회복이라는 전인적 인격수양을 통하여 인류의 행복과 지상낙원 건설의 열원이 실현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길이 최고의 가치이자 선이요, 지상과제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탐욕과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여야 함을 절감하고, 이를 우선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 길만이 전 지구적 위기와 인간성 상실의 아비규환의 세대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음을 전 인류를 향하여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호 / 본부제단 6지역장

두말할 필요 없이 구세주님이다. 영원무궁토록 구심점이 되셔야 한다는 이 말에 토를 달 교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신앙의 구심점이 구세주라는 말에 구세주 대신 구세주의 말씀과 자유율법이라고 대체해도 틀리지 않는다. 말씀과 자유율법이 곧 구세주와 동일체이기 때문이다. 구세주께서 보광하신 이후의 승리제단 운영에도 이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다음의 사례를 잘 읽어 보자.

### 자유율법은 승리제단의 헌법

구세주께서는 7년 육교를 치르시고 나오신 2000년 말경에 운영위원들을 소집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승리제단의 교주가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이다. 이 사람은 앞으로 제단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운영위원들은 자유율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승리제단의 상황에 매우 적절하게 들어맞는다. 구세주께서 가르쳐주신 자유율법대로 승리제단은 규율되어야 한다.

올해는 구세주 보광 12년을 맞는 해이다. 보광의 충격도 이미 가라앉은 지 오래되었다. 교인들은 제자리를 잡았고, 구세주께서 가르쳐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맹렬히 투쟁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의 구심점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아직도 신앙의 구심점을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 안타깝다.\*

자 지금도 승리제단 신앙의 구심점은

### 제언

## 인간 삶의 중요한 목적은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데 뒤야 한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자기중심주의를 근본 바탕으로 작동한다. 인류 역사 이래 자기중심주의의 계속된 발달으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의 지배 아래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변되는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다. 모든 생명체가 선택한 자기중심주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또한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삶을 더욱 불행하고 황폐하게 한다.

인류의 삶의 질과 행복의 증진을 위한 학문과 종교가 많은데 왜 이다지도 인류의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선

진국일수록 행복지수는 점점 더 비관적이 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인간의 탐욕과 자기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삶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소위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평화와 행복의 실현을 목적으로 최선두에 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사회적 지도자와 신앙인, 수행인의 위선과 파렴치한 작태에 대해 굳이 매스컴의 보도를 예로 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편화가 되어감에 행복한 삶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좌절감이 든

다. 그들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인간의 신성한 마음자리를 찾는 신앙과 수행이라는 행위에 혐오와 부정적 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데 더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이비 학문인과 신앙인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내뿜는 악한 기운과 사념의 물질로 이 세상은 더욱 황폐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참다운 삶의 나아갈 방향과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을 챙겨야 할 사회적 지식인과 지도자, 수행인과 종교인은 이점 통회자복하고, 대오각성하여야 마땅하다.

앞서 있는 지식인과 깨어 있는 종교인은 인간의 자기중심주의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행복을 실현할 수도 없고, 꿈에도 그리는 세계평화 건설은 요원하다는 이치를 널리 알리려 한다.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내와 인간성 회복이라는 전인적 인격수양을 통하여 인류의 행복과 지상낙원 건설의 열원이 실현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길이 최고의 가치이자 선이요, 지상과제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탐욕과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여야 함을 절감하고, 이를 우선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 길만이 전 지구적 위기와 인간성 상실의 아비규환의 세대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음을 전 인류를 향하여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호 / 본부제단 6지역장

누구든지 내 몸처럼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2015년 메시아절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촬영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2015년 메시아절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